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오늘의 어머니**

성경: **잠언 31장 10-12절**

Tag:

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나
라

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뿔뿔하지 아니하
겠으며

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잠31:10-12)

본문의 현숙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강인한으로 번역되어야
옳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숙한(지혜롭고 정숙한) 여인이 더 가치있
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다.

(이름도 현숙이라는 이름이 많다. 숙자 돌림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로는 'career woman'이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수해준 잠언이다.

-르무엘 왕이 누구일까?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에 대한 설이 많지
만, 대체적으로는 솔로몬왕의 어렸을 때의 이름이 르무엘이었을 것이
라고 추측한다. 아무런 근거는 없다. 솔로몬의 잠언이므로 그가 누구
에게서 이 잠언을 얻었겠느냐고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지혜롭고 정략인 여인으
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녀는 아들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물론 그녀는 치정살인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윗에게
는 아내가 많았지만, 대부분 정략적 관계로 인한 아내들이었다. 오직
로렌스로 인한 아내는 밋세바다. 그런데 하필 밋세바는 당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기에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결코 정숙한 여인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윗과 재혼을 한 후로는 정숙한 여인으로 지

낼 수 있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약속한다. 다분히 밋세바가 정략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도 가능했을 것이다. 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도 밋세바가 선수를 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세명의 특별한 여인, 라합, 룻, 밋세바 모두 정숙한 여인과는 거리가 멀다. 룻과 밋세바는 재혼한 여인이고, 특히 밋세바는 치정살인의 원인이 된 여인이다.

그러나 잠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한국의 어머니와 매우 흡사하다. 그 어느나라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한국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사실은 현숙한 여인이 아닌, 강인한 여인으로 번역되어야 옳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인이 강인한 여인상을 가지고 있다. (나약한 여인으로는 라헬, 야곱의 딸 다말+ 압살롬의 동생 다말... 모든 다말이 다 나약하지는 않다. 특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빼고.)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그 어느 장수보다 지혜롭고 강인한 남성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번득이는 존재로 변신한다.

여인들은(남성에 비해) 매우 헌신적이며, 현실적이며, 상황판단이 빠르고,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분위기까지 재빨리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는 척 하면서 어린이 다루듯 한다.

-완력에서만 지는 척 할 뿐 모든 면에서 남편을 리드하는 자가 아내다. (몰래 남편을 때리는 아내도 있다고 하는데, 폭력 아내 또한 폭력 남편과 같이 악한 아내일 뿐이다. 맞고 사는 남편들에게 복이 있으라.)

-아무튼 요즘 어머니 상은 커리어 우먼이 대체다. 능력있는 여인이 되시길 축복한다.

-커리어우먼이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힘있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인을 말한다.

-자녀가 커리어를 쌓는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녀들 때문에 과감하고 도전적이며, 전장의 장수처럼 커리어를 쌓게 된다.(윤여정과 같이)

-꼭 남편이 없어야 커리어 우먼은 아니다. 남편과 별개로 잘 사는 여인이 되어야 한다.

-꼭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요즘은 여성상위시대, 페미니즘 시대이다. 올바른 페미니즘은 메갈(남성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여성그룹)이 아니다. 진정한 여성상은 강인한 어머니상이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IT나 금융관계 기술자와 여타 다른 직업군과는 수입격차가 커져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나라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겠는가. (이번 여당 대선주자 3인 모두 기본소득 공약을 내 걸었다.)

-나는 남녀공통모병제를 제안한다. 군생활 최소 4년 7년 장기로 나눠 대학생활을 군에서 보장하고, 4년이 지나면 하사관, 7년이 지나면 장교시험을 보게 하면 된다.

산업은 결국 IT나 AI로 집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직업은 헤쳐모여가 될 수 밖에 없다. 정치인, 종교인, 노조, 방송인, 등 구태에서 벗어나기 힘든 집단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세상은 앞으로도 시끌거리겠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자.)

지금도 수많은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산업이 IT나 AI가 확장되고 접목된 기술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제는 농사도 첨단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열심히 땀흘려 일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친환경, 생명과학, 각종 센서를 장착한 기계영농, 스마트팜 시대가 곧 활짝 열린다. (벌써 열렸지만, 아직은 고가)

해조류나 물고기도 벌써 대부분 양식이다. 이제 여기에 IT, AI가 접목된다. TV에서 요리나 K-pop만 다룰때가 아니다. 이 유행도 곧 지나가리라. 정글의 법칙 보다는 스마트팜의 법칙을 방영해야 한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런 자녀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뽕뽕이 돌리고, 취직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에는 답이 없다. 어차피 사무실도 대부분 IT와 AI에 의해서 더 이상 많은 사무실 직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귀찮은 일들은 모두 외주에 맡기게 된다. 회사마다 필요한 기술자가 많은 회사를 상대로 일마다 그때 그때 돈을 받으며 처리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1인 회사가 됨. 1인 블로그 Vlog를 활용한 1인 기업 시대가 됨.) 지금은 하청업체가 리스크의 고민들을 떠 안고 있지만, 결국 개인의 업무에 특화된 보험 상품이 나올 것이고, 산재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노조도 힘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 답은 현장 노동에서도 IT와 AI가 대세인 셈이다.

과거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빨리 배우는 것이 답이 되었다. 언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부분의 학습은 학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신좌파 운동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힌 숙련된 기술자들이 없어서 안달이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서민들도 더 훌륭한 주거시설에서 살아야 하고, 해외여행도 쉽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산다. 지금은 중산층 이상만 그런 삶을 사는데, 사실은 모두가 그런 삶을 살도록 더 힘차게 일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 없을 뿐이다. 새 시대가 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일자리는 새 기술을 장착한 일꾼에게 열려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시대에 맞는 새어린이를 키워내는 자는 오직 지혜롭고 강인한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영성이란 무엇인가? 성경: 요한일서 4장

Tag:

영성은 기독교영성과 비기독교영성으로 나뉜다.

비기독교영성은 타종교영성을 말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내적인 정신세계와 악한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

-기독교영성은 가톨릭영성과 개신교영성으로 나뉜다.

-가톨릭영성에는 마리아에 대한 신앙고백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가톨릭은 마리아상 중심의 전통교회이다.

-개혁교회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신격적 인격적 올바른 관계이다. (가톨릭과 비교시 그곳은 인격적인 요소가 더 강함)

-성령충만이 정답이다.

1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영들(마귀와 그 줄개 귀신들과 그들의 거짓말들)에게 속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영성이 아니다.

-오직 성경만 '영적인 존재'의 실존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세속 영성의 허점.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함. 그들은 영적인 것은 육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함.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속의 영들은 예수의 하나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이)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개념이 공동체 영성으로서 중요함.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하나님의 존재임이 증명되는 방식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가장 분명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곧 십자가. 독생자 곧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

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안에 거하심이 곧 영성의 핵심.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시인;신앙고백을 말함. 신앙고백이라는 열쇠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거하심.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신이 이루어짐.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세상의 심판을 이김. 두려움에서 벗어남.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두려움.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제일이라도, 그 사랑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랑은 거짓 사랑임. 그런자는 사랑의 탈을 뒤집어 쓴 진마귀임.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4:1-21)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요일 1:7-13)